

읽기 쉬운 신약성경

Language: 한국어 (Korean)

Provided by: Bible League International.

Copyright and Permission to Copy

Taken from the Korean: Easy-to-Read Version © 2003 by Bible League International.

PDF generated on 2017-08-25 from source files dated 2017-08-25.

9bac292a-0755-530b-b49d-81aef79b3112

ISBN: 978-1-5313-1313-5

요한복음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다

1 맨 처음,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² 그분은 맨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³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았다. ⁴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모든 사람을 비추는 빛이었다. ⁵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나, 어둠이 그 빛을 알지 못하였다. †

⁶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요한 ‡ 이었다. ⁷ 그는 사람들에게 빛에 관한 것을 알리려고 왔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그를 통하여 빛에 관하여 듣고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⁸ 요한 스스로가 그 빛은 아니었다. 그는 오직 그 빛에 관하여 증언하는 사람으로 왔을 뿐이다. ⁹ 모든 사람을 비추는 ¶ 참 빛이 세상으로 오고 있었다.

¹⁰ 그분은 세상에 계셨다. 그리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만들어졌는데도,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¹¹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¹² 그러나 그분을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분을 믿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¹³ 그들은 자연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자녀가 아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욕망에 따라 태어나지도 않았고, 어떤 남편의 결정에 따라 태어나지도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¹⁴ 말씀은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그 영광은 아버지의 외아드님에게 따르는 영광이었다. 그리고 그분께는 은혜 §와 진리**가 넘쳐났다. ¹⁵ 요한은 사람들에게 그분에 대해 증언하여 이렇게 외쳤다. “내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훨씬 더 위대하십니다.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내가 말하던 바로 그분이십니다.”

¹⁶ 우리는 모두 그분의 흘러넘치는 은혜에서 복을 넘치게 받았다. ¹⁷ 하나님께서 율법 †† 은 모세를 통하여 주셨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¹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뵈는 적이 없다. 그런데 외아드님 스스로가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분이시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 주셨다 † †.

* **1:1 말씀** 그리스어로 ‘로고스’ 라고 한다. ‘로고스’ 는 모든 종류의 의사 전달을 가리키며, ‘메시지’ 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 여기서 ‘말씀’ 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알리는 방법인 그리스도를 뜻한다.

† **1:5 알지 못하였다** 또는 ‘이기지 못하였다.’

‡ **1:6 요한** 세례자 (침례자)요한. 그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고 선포하였다(막 3장, 눅 3장).

¶ **1:9 모든 사람을 비추는** 또는 ‘모든 사람을 깨닫게 하는.’

§ **1:14 은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 **1:14 진리**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함.

†† **1:17 율법** 또는 ‘법’.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리고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모세를 통하여 유대 사람에게 주신 법.

‡ ‡ **1:18 그런데...보여주셨다** 문자 그대로는 다음과 같다. “아버지와 아주 가까운, 단 한 분, 곧 하나님이신, 외아들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다.” 또 다른 그리스어 사본은 다음과 같다. “외아들께서는 아버지와 매우 가까운 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다.”

요한이 예수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알리다

(마 3:1-12; 막 1:2-8; 눅 3:1-9, 15-17)

19 예루살렘의 유대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 ¶ 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그가 누구인지 물어보게 하였다. 20 요한은 조금도 숨기지 않고 분명하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21 그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엘리야 § 입니까?”

요한은 “아닙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그 예언자’* 입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나는 ‘그 예언자’ 가 아닙니다.”

22 그들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우리 물음에 답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이 누구인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 주십시오.”

23 요한은 예언자 이사야 † 의 말로 그들의 물음에 대답하였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여라.’ 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목소리입니다.” ‡

24 보냄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에는 바리새파 사람들도 몇이 있었다. 25 그들이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 도 아니라면, 어찌하여 세례를 줍니까?”

26 요한이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에는 여러분이 모르는 어떤 분이 서 계십니다. 27 그분이 바로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 만한 사람도 못 됩니다.”

28 이 일은 요단 강 ¶ 건너편 베다니 마을 § 에서 있었던 일이다. 요한은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29 이튿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세상의 죄를 없애 주실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오십니다. 30 내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위대하십니다.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내가 말하던 바로 그분이십니다. 31 나 자신도 누가 그분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누가 그분인가를 알리려는 것입니다.”

32 그런 다음 요한은 이렇게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33 나도 처음에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성령이 내려와 어떤 사람 위에 머무는 것을 볼 것이다.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줄 사람이다.’ 34 나는

¶ ¶ 1:19 레위 사람 레위 가문의 사람으로서,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돕는 일을 하는 사람.

§ § 1:21 엘리야 기원전 850년 무렵에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예언자. 유대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고 믿었다(말 4:5-6).

* 1:21 그 예언자 여기서 말하는 ‘그 예언자’ 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예언자를 뜻하는 듯하다(신 18:15-19).

† 1:23 이사야 기원전 742-701년에 유다에서 활동했던 예언자.

‡ 1:23 사 40:3.

¶ 1:28 요단 강 유대의 동쪽 지역에 있는 강으로, 북에서 남으로 흐른다.

§ 1:28 베다니 마을 예루살렘의 남쪽에 있는 마을.

** 1:29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는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어린 양과 같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분에게서 그대로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 이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맨 먼저 따른 사람들

35 다음 날 요한은 제자 두 사람과 함께 다시 그곳에 와 있었다. 36 그는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 ‡} 이시다!”

37 요한과 함께 있던 두 제자가 이 말을 듣고 예수의 뒤를 따라갔다. 38 예수께서 몸을 돌려,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물으셨다.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그들이 말하였다.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39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래서 두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다. 그들은 예수께서 묵고 계신 곳을 보고, 그날을 그분과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네 시쯤이었다.

40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다.

41 안드레는 곧장 자기 형 시몬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어요.” 라고 말하였다. (‘메시아’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뜻이다.)

42 안드레는 형 시몬을 예수께 데리고 갔다. 예수께서 시몬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부터 너는 게바라고 불릴 것이다.”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이다.)^{¶ ¶}

43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기로 하셨다. 그때에 빌립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다. 44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함께 벳새다^{§ §}라는 마을에서 온 사람이었다.

45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모세가 어떤 분에 관하여 율법 책에 쓴 것을 읽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자들도 그분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마을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이십니다.”

46 그러나 나다나엘은 빌립에게 이렇게 대꾸하였다. “나사렛이라니! 나사렛에서 어떻게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대답하였다. “와서 보십시오.”

47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 사람이야말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48 나다나엘이 예수께 여쭙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빌립이 너를 찾아가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49 그러자 나다나엘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50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믿는구나. 그러나 너는 앞으로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을 볼 것이다!”

51 그러고 나서 덧붙여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볼 것이다.”

† † **1:34 하나님의 아들** 어떤 아주 초기의 그리스어 사본에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이라고 되어있음.

‡ ‡ **1:36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바쳐지는 어린 양과 같다는 뜻.

¶ ¶ **1:42 게바, 베드로** 아람어인 ‘게바’와 그리스어인 ‘베드로’는 둘 다 ‘바위’라는 뜻이다.

§ § **1:44 벳새다** 갈릴리호수 북쪽에 있는 마을.

* **1:51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 창 28:12을 볼 것.

가나의 혼인 잔치

2 이를 뒤에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는 마을[†]에서 혼인 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다. ² 그리고 예수와 그분의 제자들도 잔치에 초대를 받아 와 있었다. ³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라고 말씀하셨다.

⁴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머님, 그것이 저와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은 저의 때가 아닙니다.”

⁵ 예수의 어머니가 그 집 종들에게 말하였다. “무엇이든지 예수가 하라는 대로 하시오.”

⁶ 가까이에 돌로 만든 물 항아리 여섯 개가 있었는데, 각기 두세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유대 사람에게는 이런 항아리에 채워 두었던 물로 몸을 깨끗이 씻는 의식[¶]이 있었다.

⁷ 예수께서 종들에게 이르셨다. “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종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⁸ 예수께서 종들에게 다시 이르셨다. “이제 조금 떠서, 잔치를 맡은 사람에게 갖다 주어라.”

그들은 그대로 하였다. ⁹ 잔치를 맡은 사람이 포도주로 변해 있는 물을 맛보았다. 물을 떠간 종들은 그 술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고 있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신랑을 불러냈다.

¹⁰ 그리고 신랑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대접하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는 그보다 못한 포도주를 내놓는 법이오. 그런데 그대는 가장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 두었구려!”

¹¹ 예수께서 보여 주신 많은 표적 가운데,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지방의 가나라는 마을[§]에서 보여 주셨다. 그분은 그렇게 하여 당신의 능력^{**}을 보여 주셨고, 제자들은 그분을 믿고 의지하였다.

¹²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예수께서는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셔서, 그곳에서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다.

성전에 가신 예수

(마 21:12-13; 막 11:15-17; 눅 19:45-46)

¹³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¹⁴ 그리고 성전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¹⁵ 예수께서는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와 함께 그들 모두를 성전 밖으로 내쫓으셨다. 그리고 돈 바꾸어 주던 사람들의 돈을 쏟아 버리고 그들의 상을 엮으셨다.

¹⁶ 예수께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들을 가지고 썩 나가거라! 너희가 감히 내 아버지의 집을 시장바닥으로 만들다니!”

¹⁷ 제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였다.

“당신의 집을 향한 나의 열정이 나를 망하게 할 것입니다.”^{¶¶}

¹⁸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은 어떤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서, 당신이 이 모든 일을 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셈입니까?”

[†] **2:1 가나라는 마을** 갈릴리 지방 서쪽에 있는 마을.

[‡] **2:6 두세 동이들이 항아리** 75리터에서 115리터쯤 들어가는 항아리.

[¶] **2:6 깨끗이 씻는 의식** 음식을 먹기 전이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전, 그리고 그 밖의 특별한 때에 몸을 씻는 유대 사람들의 종교 의식.

[§] **2:11 가나라는 마을** 갈릴리 지방 서쪽에 있는 마을.

^{**} **2:11 능력** 또는 ‘영광’.

^{††} **2:12 가버나움** 갈릴리 호수 가까이에 있다.

^{‡‡} **2:17 성경** 구약성경.

^{¶¶} **2:17 시 69:9.**

19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겠다.”

20 유대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 데 사십육 년이 걸렸소! 그런데 당신이 그것을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단 말입니까?”

21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자신의 몸을 뜻하는 것이었다. 22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그분이 하신 이 말씀을 생각해 냈다. 그리고 예수에 관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23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내시는 동안, 많은 사람이 그분이 보여 주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고 의지하였다. 24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믿고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려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속속들이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25 그분은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떤 누구의 증언도 들을 필요가 없으셨다. 그분 스스로 사람들의 속마음까지 다 알고 계셨다.

예수와 니고데모

3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의회 의원이었다. 2 그가 어느 날 밤에 예수를 찾아와 말씀드렸다. “랍비님,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선생님께서 보여 주시는 표적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 5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4 니고데모가 물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5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6 육체의 생명은 인간인 부모에게서 태어나지만, 영적인 생명은 성령께로부터 태어난다. 7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 라는 내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8 바람*은 불고 싶은 쪽으로 분다. 너는 바람 부는 소리를 들을 수는 있으나, 그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오며, 또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이와 같다.”

9 니고데모가 물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10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11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우리가 본 것에 대하여 증언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2 내가 이 땅의 일에 대하여 말하는데도 너희는 믿지 않는다. 그러니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13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사람의 아들밖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없다.

14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다. † 그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15 그것은, 사람의 아들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16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찌나 사랑하셨던지 당신의 외아들까지 주셨다. 그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17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시켜 세상을 구원 ‡ 하시려는 것이다.

18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죄인으로 판결받지 않는다. 그러나 누구든지 믿지

§ 5 **3:3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또는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 **3:8 바람** 그리스어로 ‘바람’ 과 ‘영’ 은 같은 말이다.

† **3:14 모세가...들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뱀에 물려 죽어 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 놋으로 만든 뱀을 막대기 끝에 달아 높이 세우게 하셨다. 이 뱀을 바라본 사람은 모두 살 수 있었다(민 21:4-9).

‡ **3:17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않는 사람은 이미 죄인으로 판결받았다. 하나님의 외아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¹⁹ 빛이 하늘로부터 세상에 들어왔으나, 사람들은 빛보다 오히려 어둠을 원하였다. 자기들이 하는 짓이 악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죄인으로 판결받은 것이다. ²⁰ 누구든지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빛을 미워한다. 그리고 자기의 악한 짓이 빛에 환히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빛 속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²¹ 그러나 누구든지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빛 속으로 들어온다. 그것은 자기가 한 일이 하나님을 통하여 한 일이라는 것이 밝히 드러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와 세례자 요한

²²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예수와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셨다. 그러나 계속하여 유대 지방에 머무시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셨다. ²³ 그런데 요한도 살렘에서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다. 그곳에 물이 많았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세례를 받으러 왔기 때문이다. ²⁴ (이 일은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의 일이다.)

²⁵ 요한의 몇몇 제자들과 어떤 유대 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그들은 깨끗이 씻는 의식[§]을 두고 말다툼을 하였다. ²⁶ 그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과 함께 있던 그 사람이 요단 강** 건너편에서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 사람에 대하여 증언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그 사람에게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²⁷ 요한이 대답하였다. “사람은 오직 하늘이 주시는 것만을 받을 수 있다. ²⁸ 내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길을 준비하라고 앞서 보내신 사람일 따름입니다.’ 너희야말로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²⁹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들러리를 서는 친구는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신랑의 목소리를 들으면 기쁨에 넘친다. 나는 지금 그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³⁰ 그분은 더욱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하늘나라에서 오신 분

³¹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시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며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시다. ³² 그분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³³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참되시다는 것을 확증하였다. ³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³⁵ 아버지께서는 아드님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다스릴 권한을 아드님에게 주셨다. ³⁶ 그러므로 누구든지 아드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삶을 누린다. 그러나 누구든지 아드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영원한 삶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 사람 위에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 것이다.”^{† †}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을 나누시다

4 예수께서 요한^{‡ †}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었다. ² (그러나 사실은 예수께서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 **3:21**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을 예수의 말씀으로 보나, 어떤 학자들은 요한복음의 저자가 쓴 것으로 본다.

[§] **3:25** 깨끗이 씻는 의식 음식을 먹기 전이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전, 그리고 그 밖의 특별한 때에 몸을 씻는 유대 사람들의 종교 의식.

** **3:26** 요단 강 유대의 동쪽 지역에 있는 강으로, 북에서 남으로 흐른다.

^{† †} **3:36**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을 세례자 요한의 말로 보나, 어떤 학자들은 요한복음의 저자가 쓴 것으로 본다.

^{‡ †} **4:1** 요한 세례자 요한을 가리킨다.

제자들이 준 것이다.)³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유대 지방을 떠나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가기로 하셨다.⁴ 그런데 갈릴리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 땅을 거쳐 가야만 하였다.

⁵ 예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주었던 땅에서 가까웠다.⁶ 그리고 야곱의 우물도 그곳에 있었다. 먼 길을 오느라 지치신 예수께서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⁷ 그때 마침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우물로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 좀 주겠느냐?” 라고 말씀하셨다.⁸ (예수의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려고 벌써 마을로 들어가고 없었다.)

⁹ 사마리아 여자가 대답하였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게 마실 물을 달라고 청하실 수 있습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지 않는다.)

¹⁰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그리고 네게 물을 달라고 청하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다. 만일 내가 알았다라면 내게 청했을 것이고, 나는 네게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이다.”

¹¹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이 우물은 매우 깊고, 선생님께는 물을 길어 올릴 그릇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디서 이 생명의 물을 얻으시겠습니까?¹² 선생님께서는 우리 조상 야곱보다 훌륭한 분이십니까? 야곱은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직접 이 우물의 물을 마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그분의 아들들과 모든 가축이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¹³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모두 다시 목마를 것이다.¹⁴ 그러나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¹⁵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제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물을 길러 오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¹⁶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네 남편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¹⁷ 여자가 대답하였다. “제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는 네 말이 맞다.¹⁸ 사실 네게는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다. 그리고 지금 너와 함께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 네 말이 맞다.”

¹⁹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께서 예언자이신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²⁰ 우리 조상은 이 산 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네 유대 사람들은 예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²¹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러 이 산으로나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도 될 때가 오고 있다.²²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에 예배한다. 그러나 우리 유대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분께 예배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유대 사람을 써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다.²³ 그러나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진리에 따라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다가오고 있다. 아니, 벌써 여기에 와 있다.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²⁴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진리에 따라 예배를 드려야 한다.”

²⁵ 여자가 말하였다. “저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께서 오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²⁶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네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이다.”

¶ 4:4 사마리아 유대 지방의 북쪽에 있는 지역.

§ 4:7 사마리아 여자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유대 사람의 피가 반쯤 흐르고 있었지만, 유대 사람들은 그들을 순수한 유대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업신여겼다.

* 4:9 유대 사람은...않는다 또는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 쓴 그릇은 쓰지 않는다.” 어떤 고대 사본에는 이 부분이 없다.

27 바로 그때 마을로 갔던 제자들이 돌아왔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그 여자와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선생님, 무슨 일입니까?” 또는 “어찌하여 이 여자와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하고 묻지 않았다.

28 그 여자는 물동이를 그 자리에 버려 두고 마을로 돌아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29 “이제껏 내가 한 일을 모두 알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도가 아닐까요?” 30 사람들은 마을에서 나와 예수를 보러 갔다.

31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은 예수께 “선생님, 무얼 좀 드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32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게는 너희가 모르는 먹을 양식이 있다.”

33 그러자 제자들이 서로에게 말하였다. “누가 선생님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34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35 너희는 ‘녁 달 뒤 여름이 끝날 때에야 추수가 시작되겠지.’ 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벌써 곡식이 다 익어 거두어둘 때가 되었다. 36 지금 이 순간에도 거두는 사람이 샷을 받고 있다. 그가 거두어들이는 곡식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사람들이다. 그리하여 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37 ‘심는 사람 따로, 거두는 사람 따로’ 라는 말이 있는데, 맞는 말이다. 38 나는 너희를 보내어, 너희가 힘들여 키우지 않은 곡식을 거두게 하였다. 다른 사람들이 힘든 일을 했고, 너희는 그들이 힘들여 키워 놓은 것을 거두었다.”

39 그 사마리아 마을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그분은 내가 한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40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네 동네에 머무시기를 간곡히 청하였다. 예수께서는 이를 동안 그 마을에 머무셨다. 41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42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처음에는 당신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었소. 그러나 지금은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분을 믿게 되었소. 이제 우리는 그분이 참으로 세상을 구원[†] 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소.”

관리의 아들을 고치시다

(마 8:5-13; 눅 7:1-10)

43 이를 뒤에 예수께서는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 44 (예수께서는 친히 예언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는 점을 꼬집어 말씀하신 적이 있다.) 45 예수께서 갈릴리에 이르셨을 때 그곳 사람들은 예수를 반갑게 맞이하였다. 그들도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46 예수께서 또다시 갈릴리의 가나로 가셨다. 가나는 전에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왕의 신하 한 사람이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병으로 누워 있었다. 47 그는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가나에 계신 예수를 찾아왔다. 그는 예수께, 가버나움으로 가서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 주시기를 애원하였다. 그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48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적과 놀라운 일들을 보지 않으면 결코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49 왕의 신하가 말하였다. “선생님,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가 주십시오.”

50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의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51 그는 집으로 내려가는 길에 그의 종들을 만났다. 종들은 그에게 “아드님이 살아나셨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52 그가 물었다. “언제부터 내 아들이 나왔느냐?”

종들이 대답하였다. “어제 오후 한 시쯤 아드님의 열이 내렸습니다.”

[†] 4:42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 4:46 가버나움 갈릴리 호수 가까이 있으며, 가나에서 29킬로미터쯤 떨어져 있다.

53 그러자 아버지는 바로 그 시간이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때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그와 그의 집안사람 모두가 예수를 믿었다.

54 그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뒤에 보여 주신 두 번째 표적이다.

베드자다 못에서 한 병자를 고치시다

5 얼마 뒤에, 예수께서 유대 사람의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²예루살렘에는 아람 말[¶]로 베드자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다. 그 못은 ‘양의 문’^{**} 가까이에 있었다. 그리고 못 둘레에는 다섯 개의 행각^{††}이 서 있었다. ³여기에 눈먼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중풍병 환자 같은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⁴¶[¶]5 그곳에 있는 사람 가운데에는 삼십팔 년 동안 다리를 못 쓰고 누워 있는 남자가 있었다. ⁶예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병이 아주 오래되었다는 것을 아셨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네 병이 낫기를 바라느냐?”

⁷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네, 선생님. 그렇지만 물이 움직일 때, 저를 도와서 못 안으로 들어가게 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저 혼자 들어가려고 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립니다.”

⁸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네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⁹곧바로 그의 병이 나았다. 그는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¹⁰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이오.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법에 어긋나오.”

¹¹그가 대답하였다. “내 병을 고쳐 주신 분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소.”

¹²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그 사람이 누구요?”

¹³그러나 병이 나은 사람은 자기를 고쳐 주신 분이 누구인지 몰랐다. 예수께서 그곳에 있던 무리 속으로 사라지셨기 때문이다.

¹⁴그 뒤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지금은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더 나쁜 일이 네게 생길지도 모른다.”

¹⁵그 사람은 유대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를 낫게 해 준 사람이 예수라고 말하였다.

¹⁶예수께서 이런 일들을 안식일에 하고 계셨으므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¹⁷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는 바로 오늘까지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나도 일한다.”

¹⁸이 말씀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더욱 예수를 죽이고 싶어하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불려서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올려놓았기 때문이다.

¶ 5:2 아람 말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살던 대부분의 유대 사람들이 쓰던 히브리어와 비슷한 언어.

§ 5:2 베드자다 또는 ‘벳세다’ ‘베데스다’. 예루살렘 성전의 북쪽에 있는 못.

** 5:2 양의 문 예루살렘 성전의 북쪽 문. ‘베냐민 문’ 이라고도 하며, 제물로 쓸 짐승을 이 문으로 가지고 들어가게 하였다.

†† 5:2 행각 건물의 본체에 따른, 지붕이 있는 기다란 집채, 또는 회랑. 여기의 행각은 못가에 지은 것이었다.

‡‡ 5:3 어떤 그리스어 사본에는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는 말이 뒤 따르고 있다.

¶¶ 5:4 4절 어떤 사본에는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렸다. 이따금 주의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았다. 천사가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맨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나았다.” 라는 구절이 붙어 있다.

하나님의 권한을 가지신 예수

19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아들은 혼자만의 생각으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 일을 따라 할 뿐이다.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아들도 그 일을 한다. 20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며,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모두 보여 주신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이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일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 주실 것이다. 너희는 그 일들을 보고 놀랄 것이다. 21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어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들도 아들이 살리고 싶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준다. 22 더구나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할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23 그것은,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처럼 아들도 존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것이다.

24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며,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미 죽음을 벗어나 생명으로 들어섰다. 25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26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아들도 자기 안에 생명을 가지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27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심판할 권한을 주셨다. 그가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28 너희는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그의 목소리를 듣고 29 무덤에서 나올 때가 올 것이다. 그때에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일어나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일어나 징죄받을 것이다.

유대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다

30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그러니 내 심판은 옳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기 때문이다.

31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 32 나를 위하여 증언해 주는 사람이 따로 있다. 나는, 나에 대한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안다.

33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냈을 때, 그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다. 34 나는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너희가 구원^{§ 5}을 받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다. 35 요한은 밝게 타오르며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그의 빛을 보고 한동안 기뻐하려 하였다.

36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무게 있는 증언이 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완수하라고 맡기신 일들을 하고 있다. 그러니 내가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한다. 37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몸소 나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한 번도 그분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고, 그분의 모습을 보지도 않았다. 38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겨 두지도 않는다. 너희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39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으리라고 생각하여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한다. 바로 그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40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41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 42 나는 너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안다. 43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44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영광은 얻으려고 애쓰지 않는다. 그러니

§ 5:34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5:39 성경 구약성경.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⁴⁵ 그러나 내가 너희를 걸어서 아버지께 고발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희망을 걸어 온 모세가 오히려 너희를 고발할 것이다. ⁴⁶ 만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을 것이다. 모세가 기록한 것이 나를 두고 한 것이기 때문이다. ⁴⁷ 너희가 모세의 글도 믿지 않으니,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오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다

(마 14:13-21; 막 6:30-44; 눅 9:10-17)

6 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 [†] 곧 디베라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다. ²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아픈 사람들에게 베푸신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³ 예수께서는 산에 올라 제자들과 함께 자리를 잡고 앉으셨다. ⁴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⁵ 예수께서는 큰 무리가 당신께 몰려오는 것을 보고 빌립에게 물으셨다.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먹일 빵을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⁶ (그분이 이렇게 물으신 것은 오직 빌립을 시험해 보시려는 것이었다. 그분은 이미 당신께서 하실 일을 마음속으로 정해 놓고 계셨다.)

⁷ 빌립이 대답하였다. “여기 모인 모든 사람에게 조금씩이라도 빵을 먹이려면, 한 사람이 여덟 달을 일해서 번 돈 [‡]으로 빵을 사도 모자랄 것입니다.”

⁸ 그 자리에는 제자 안드레도 있었다. 안드레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이다. 안드레가 말하였다. ⁹ “여기 한 아이가 보리빵 다섯 개와 작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이기에는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¹⁰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앉혀라.” 그곳에는 잔디가 많았는데, 거기에 앉은 사람은 남자만 해도 오천 명쯤 되었다. ¹¹ 예수께서 손에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곳에 앉은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나누어 주셨다.

¹²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아라. 조금이라도 버리지 않도록 하여라.” ¹³ 그래서 보리빵 다섯 개를 사람들이 나누어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제자들이 모으니,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찼다.

¹⁴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였다. “이분은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 [¶]가 틀림없다.”

¹⁵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억지로 자기를 왕으로 모시고 싶어하는 것을 아시고, 사람들을 피하여 혼자서 산으로 가셨다.

물 위를 걸으시다

(마 14:22-27; 막 6:45-52)

¹⁶ 그날 저녁에 예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로 내려갔다. ¹⁷ 날은 어두워졌는데, 예수께서는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에 있는 가버나움 [§] 쪽으로 가기 시작하였다. ¹⁸ 그런데 세찬 바람이 불고 호수의 물결이 사나워졌다. ¹⁹ 제자들이 심여 리쯤 ^{**} 배를 저어 갔을 때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서 배로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²⁰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²¹ 그러자 그들은 반가이 예수를 맞아 배에 오르시게 하였다. 그리고 배는 곧바로 그들이 가려던 호수 기슭에 이르렀다.

[†] 6:1 갈릴리 호수 갈릴리 지방의 동쪽에 있는 호수.

[‡] 6:7 한 사람이 여덟 달을 일해서 번 돈 글자 그대로는 ‘200데나리온’. ‘데나리온’을 볼 것.

[¶] 6:14 그 예언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내 주겠다고 약속하신 예언자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신 18:15-19).

[§] 6:17 가버나움 갈릴리 호수 가까이에 있다.

^{**} 6:19 심여 리쯤 그리스어로는 ‘25에서 30스타디아쯤’. 7킬로미터쯤 되는 거리.

사람들이 예수를 찾다

22 이튿날이 되었다. 호수 저편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보려고 호숫가로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그 전 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거기에 배가 한 척만 있었다는 것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지 않으셨다는 것, 그리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떠나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23 그때에 디베라에서 배 몇 척이 그들이 있는 곳으로 와서, 그 전 날 주 예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 먹이신 곳 가까이에 닿을 내렸다. 24 우리는 예수도 제자들도 그곳에 없는 것을 알고는, 디베라에서 온 배에 나누어 타고 예수를 찾아 가버나움으로 떠났다.

생명의 빵이신 예수

25 그들이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를 만나서 말하였다. “선생님, 언제 이리로 오셨습니까?”

26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고 그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27 너희는 썩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썩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을 얻기 위해 일하여라. 사람의 아들이 그 양식을 주겠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기 때문이다.”

28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 여쭙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려면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29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30 그들이 다시 여쭙었다. “그렇다면 어떤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렵니까? 선생님께서서는 무슨 일을 하실 겁니까? 31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려 주신 만나[†]를 먹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빵을 내려 주어 그들이 먹게 하셨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32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 주신 분은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된 빵을 내려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33 무엇이 하나님의 빵이나?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가 하나님의 빵이다.”

34 그들이 말하였다. “선생님, 지금부터는 저희에게 이 빵을 주십시오.”

35 그러자 예수께서 선포하셨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36 그러나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37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올 것이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나는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다. 38 나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려고 왔기 때문이다. 39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것이다. 40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모두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모두 살릴 것이다.”

41 유대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이 못마땅해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42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우리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어떻게 그가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 † 6:31 만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유대 사람들에게 주셨던 양식.

‡ ‡ 6:31 성경 구약성경.

¶ ¶ 6:31 하나님께서...먹게 하셨다 시 78:24.

43 그 말을 듣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말아라. 44 어느 누구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내게로 올 수 없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 사람을 살릴 것이다. 45 예언서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아버지께 배우는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온다. 46 이 말은 어느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47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삶을 누린다. 48 나는 생명의 빵이다. 49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나 죽었다. 50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 여기에 있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51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빵은 내 살이다. 나는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내 살을 주겠다.”

52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날카로운 논쟁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에게 자기의 살을 주어 먹게 할 수 있단 말인가?”

53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어야 한다. 그리고 그의 피를 마셔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 안에는 생명이 없다. 54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다. 55 내 살은 참 양식이며, 내 피는 참 물이기 때문이다. 56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물고, 나는 그 사람 안에 머문다. 57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는 아버지의 힘으로 산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를 먹는 사람은 나의 힘으로 살 것이다. 58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만나를 먹었으나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 이것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 하신 말씀이다.

많은 제자가 예수를 떠나다

60 이 말씀을 듣고 예수의 제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은 참 어려운 가르침이다. 누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61 예수께서는 자기의 가르침을 두고 제자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이 가르침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62 그러면 사람의 아들이 자기가 온 곳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보는 날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63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 이시다. 육은 아무 데도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성령과 생명을 준다. 64 그러나 너희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누가 믿지 않는 사람이며, 누가 자신을 배반할 것인지 알고 계셨다. 65 예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66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많은 제자가 예수의 곁을 떠났다. 그들은 그 뒤로 예수를 따르지 않았다.

67 예수께서 열두 사도에게 물으셨다. “설마 너희도 떠나려는 것은 아니겠지?”

68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여, 당신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69 우리는 선생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믿고, 또 알고 있습니다.”

70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 열둘을 뽑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은 악마다.”⁷¹ (이것은 가리옷 사람 시몬의 아들인 유다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그는 열두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으나, 나중에 예수를 배반할 사람이었다.)

§ § 6:45 하나님께서...것이다 사 54:13.

* 6:49 만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유대 사람들에게 주셨던 양식.

† 6:63 하나님의 영 또는 ‘영’ ‘성령’.

예수와 예수의 형제들

7 이 일이 있고 난 뒤, 예수께서 갈릴리 지방을 두루 다니셨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에 유대 지방으로는 가지려 하지 않으셨다.² 그러나 유대 사람들의 명절인 초막절[‡] 이 가까워졌다.³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를 떠나 유대 지방으로 가서, 형님의 기적을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도 보여 주십시오.⁴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는 사람으로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일을 할 바에는 형님을 세상에 드러내십시오.”⁵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⁶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언제나 여기 와 있다.⁷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수 없으나 나는 미워한다. 그것은 내가, 세상이 하는 짓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⁸ 그러니 명절에는 너희나 올라가거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으므로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⁹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갈릴리에 남으셨다.

¹⁰ 그러나 예수의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뒤에, 예수께서는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다.¹¹ 명절 동안에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찾으면서, “그 사람이 어디 있소?” 하고 물었다.

¹² 그곳에는 큰 무리가 모여 있었다. 그들 사이에 예수를 두고 수군거리는 말들이 많았다. 어떤 사람들은 “그는 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는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라고 말하였다.¹³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수를 두고 드러내 놓고 말하지는 못하였다. 유대 사람 지도자들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에서 가르치시다

¹⁴ 예수께서는 명절이 반쯤 지나서야 성전으로 올라가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¹⁵ 유대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공부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¹⁶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를 보내신 분께로부터 오는 것이다.¹⁷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내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지, 또는 내 생각에서 나온 것인지 알 것이다.¹⁸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를 보내신 분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에게는 거짓이 하나도 없다.¹⁹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 법을 지키지 않는다.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²⁰ 무리가 대답하였다. “당신은 악령이 들었소!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오?”

²¹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가지 기적을 보였더니, 너희는 그것을 보고 모두 놀랐다.²²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에 관한 법을 주었다고 하여, 너희는 안식일에도 아이에게 할례를 베푼다. (그러나 실제로 할례는 모세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모세보다 앞서 살았던 조상들이 시작한 것이다.)²³ 모세가 준 할례에 관한 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안식일에도 아이가 할례를 받을 수 있다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온몸을 고쳐 주었다고 하여 내게 화를 내느냐?²⁴ 단순히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바른 판단을 내려라.”

[‡] **7:2 초막절** 히브리어로는 ‘숙곳’, ‘수장절’ 이라고도 한다. 유대 사람들은 자기들이 시내 광야에서 지낸 시절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하여 이때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천막이나 임시로 세운 숙소에서 지냈다.

[‡] **7:19 율법** 또는 ‘법’.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죄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유대 사람에게 주신 법.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궁금히 여기다

25 그러자 몇몇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저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가? 26 그가 이렇게 드러내 놓고 말하는데도, 저들은 그에게 말 한 마디 못 하고 있다. 지도자들조차 이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27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아무도 그가 어디서 오는지 모를 것이다.”

28 예수께서는 아직도 성전뜰에서 가르치시며 이렇게 외치셨다. “그렇다. 너희는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정말로 계신다. 너희는 그분을 모른다. 29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있다.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30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는 않았다. 아직 그분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31 그러나 무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하여도, 이분보다 더 많은 표적을 보여 주시겠는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잡으려 하다

32 사람들이 예수를 두고 이렇게 수군거리는 것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었다. 그래서 높은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성전 경비병들을 보냈다. 33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들과 조금 더 같이 있겠다. 그리고 나서 나를 보내신 분께 돌아가겠다. 34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올 수도 없을 것이다.”

35 유대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서로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자기를 찾지 못할 곳으로 간다니, 이 사람이 어디로 간다는 말일까? 그리스 사람들 가운데 흩어져 사는 우리 동족에게로 가겠다는 말인가? 그곳에 가서 그리스 사람들을 가르치겠다는 말인가? 36 이 사람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올 수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무슨 뜻일까?”

성령에 대해 말씀하시다

37 명절의 마지막 날이 되었다. 이날은 명절 가운데 가장 큰 날이었다. 이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모두 나에게 와서 마셔라. 38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성경⁵ 말씀대로 생명의 물이 흐르는 강이 그 사람 속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39 이것은 예수께서 당신을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받게 될 성령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께서 아직 돌아가시지 않아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그때까지는 성령이 사람들에게 와 계시지 않았다.

사람들이 예수를 두고 논쟁을 벌이다

40 그분의 말씀을 듣고,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은 틀림없이 ‘그 예언자’** 시다.” 라고 말하였다.

41 어떤 사람들은 “이분은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하였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오겠는가? 42 성경도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가?”

⁵ 7:38 성경 구약성경.

**7:40 그 예언자 여기서 말하는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예언자를 뜻하는 듯하다(신 18:15-19).

†† 7:42 다윗 기원전 1000년 즈음에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

하고 말하였다. ⁴³이렇게 예수 때문에 사람들이 나뉘었다. ⁴⁴몇몇 사람이 예수를 잡고 싶어하였으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 못하였다.

유대 지도자들이 믿기를 거부하다

⁴⁵ 마침내 성전 경비병들은 높은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돌아갔다. 그들이 경비병들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예수를 데리고 오지 않았느냐?”

⁴⁶ 경비병들이 대답하였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사람처럼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⁴⁷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였다. “너희도 예수에게 속아 넘어갔단 말이나? ⁴⁸지도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믿는 사람이 있더냐? ⁴⁹그러나 이 어리석은 무리는 율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그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이다.”

⁵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전에 예수를 만나러 간 적이 있는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⁵¹“우리 법에는 어떤 사람의 말을 듣기 전에는 판결을 내리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⁵² 그들이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도 갈릴리에서 왔소? 성경을 자세히 읽어 보시오. 그러면 갈릴리에서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오.”[†]

간음 현장에서 잡혀 온 여자

⁵³ 그러고 나서 그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8 그러나 예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²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 뜰에 나타나셨다. 모든 사람이 그분 둘레에 모여들자, 예수께서 앉아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³그때에 율법 선생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한 여자를 그곳으로 데리고 왔다. 그들은 그 여자를 그곳에 있는 사람들 앞으로 내세웠다. ⁴그리고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는 간음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⁵모세의 법에서는 그런 여자는 모두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선생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⁶그들이 이렇게 물은 것은 예수를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셨다. ⁷그들이 다그쳐 묻자, 예수께서 고개를 드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쳐라.”⁸ 그분은 다시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셨다.

⁹ 율법 선생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는 하나씩 돌씩 자리를 뜨기 시작하였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먼저 자리를 떴다. 마침내 그곳에는 예수와, 예수 앞에서 있는 그 여자만 남았다. ¹⁰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며 여자에게 물으셨다. “여인이여, 그들은 다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느냐?”

¹¹ 여자가 대답하였다. “아무도 없습니다, 선생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 가거라. 그리고 앞으로 더는 죄를 짓지 말아라.”

[‡] **7:45 제사장**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맡은 사람.

[¶] **7:49 율법** 또는 ‘법’.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죄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유대 사람에게 주신 법.

[§] **7:50 니고데모** 3:1-21을 볼 것.

^{*} **7:52 예언자** 두 개의 초기 사본에는 ‘그 예언자’ 로 되어 있다.

[†] **7:52** 요한복음의 그리스어 사본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으뜸가는 사본들에는 7:53-8:11이 빠져 있다.

[‡] **8:1 올리브 산**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산.

[¶] **8:3 간음** 아내나 남편이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가짐으로써, 순결을 지키겠다는 결혼 서약을 깨는 것.

예수는 세상의 빛이다

12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걸리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13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 증언하니, 그 증언은 참되지 못합니다.”

14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비록 나 자신에 대해 증언하더라도 내 증언은 참되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15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지만, 나는 아무도 너희처럼 심판하지 않는다. 16 그러나 만약 내가 심판하더라도 그 판결은 바르다. 그것은 나 혼자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17 너희의 법에서도 두 사람의 증언이 같으면, 그 증언은 참되다고 하지 않느냐? 18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내게 대하여 증언하시니, 내게도 두 증인이 있다.”

19 그러자 그들이 물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나도 모르고 내 아버지도 모른다.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20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궤[§] 가까이에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를 붙잡지 않았다. 아직 그분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다

21 예수께서 다시 한 번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를 떠날 것이다.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속에서 죽고 말 것이다. 너희는 내가 가는 곳으로 올 수 없다.”

22 이 말에 유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이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말인가? 그래서 ‘너희는 내가 가는 곳으로 올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일까?”

23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여기 아래에서 왔지만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24 나는 너희가 너희의 죄 속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나는 ‘내가 그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그’ 라는 것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정말로 너희의 죄 속에서 죽을 것이다.”

25 유대 사람들이 물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 온 그이다. 26 나는 너희에 대하여 할 말도 많고, 잘못되었다고 심판할 것도 많다. 나를 보내신 분이 정말로 계신다.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 들은 것을 말할 뿐이다.”

27 그들은 예수께서 아버지를 두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28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내가 그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것만을 말한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29 나를 보내신 분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혼자 버려 두지 않으신다. 내가 언제나 그분을 기쁘게 해 드리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30 예수의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의지하였다.

§ 8:20 헌금궤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돈이나 물건을 넣으려고 예배 장소에 두었던 특별한 궤.

** 8:24 나는 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된 말이다. 사 41:4, 43:10, 출 3:14 를 보라. 그러나 ‘내가 메시아다’ 를 의미하는 ‘내가 그이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 28절과 58절에서처럼.

†† 8:28 들어 올린다 십자가에 매달아 못밖아 죽인다는 뜻이다. 또한 ‘죽음’ 에서 ‘하늘’ 로 들려 올라간다는 뜻을 암시할 수도 있다.

죄로부터의 자유에 대해 말씀하시다

³¹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가르침을 계속 따르면 너희는 진정한 내 제자들이다. ³² 그러면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³³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어느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³⁴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죄의 종이다. ³⁵ 종에게는 그가 있는 집안에서 영원히 차지할 자리가 없지만, 아들은 영원한 자리를 차지한다. ³⁶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에게 자유를 주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³⁷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자리가 없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한다. ³⁸ 나는 아버지 앞에서 본 것을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³⁹ 유대 사람들이 대꾸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그대로 할 것이다. ⁴⁰ 그러나 지금 너희는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전하는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⁴¹ 너희는 너희의 아버지가 하던 일을 그대로 하고 있다.”

그들이 항의하였다. “우리는 사생아가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⁴²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시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⁴³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그것은 너희가 내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⁴⁴ 너희는 너희의 아버 곧 악마의 자식들이다. 그래서 너희는 악마인 너희의 아버가 바라는 일을 하고 싶어한다. 악마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 편에 서지 않았다. 그에게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그의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악마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⁴⁵ 그러나 나는 진리를 말한다. 그런 까닭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⁴⁶ 너희 가운데 내게 죄가 있다고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믿지 않느냐? ⁴⁷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너희가 듣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 자신과 아브라함에 관해 말씀하시다

⁴⁸ 유대 사람들이 대꾸하였다. “우리는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귀신 들렸다고도 말합니다. 우리의 말이 맞습니까?”

⁴⁹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멸시한다. ⁵⁰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영광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영광을 얻기를 바라는 분이 계시며, 그분이 심판자이다. ⁵¹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⁵² 이 말씀에 유대 사람들이 소리쳤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귀신 들린 것을 확실히 알겠소! 아브라함도 죽었고, 예언자들도 죽었소. 그런데 당신은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소. ⁵³ 당신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란 말이오? 아브라함은 죽었소. 예언자들도 죽었소. 당신은 당신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시오?”

⁵⁴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만일 내가 나를 영광스럽게 한다면, 그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해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바로 그분이다. ⁵⁵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만일 내가 그분을 모른다고 하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정녕 그분을 알고 있으며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 ⁵⁶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내가 오는 날을 보리라 생각하고 기쁨에 차 있었다. 그는 그날을 보았고 또 기뻐하였다.”

⁵⁷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아직 씌 살도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던 말이오?”

⁵⁸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있다.’” ^{† †} ⁵⁹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그들은 돌을 집어 들어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 가운데를 지나서 성전 밖으로 나가셨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고쳐 주시다

9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²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께 여쭈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³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에게서 드러나게 하려고 일어난 것이다. ⁴ 우리는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하여야 한다. 이제 밤이 다가올 터인데,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⁵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⁶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침으로 흠을 개어 그것을 눈먼 사람의 눈에 바르셨다. ⁷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실로암 못 ^{¶ ¶}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사람은 가서 씻고 앞을 볼 수 있게 되어 돌아왔다.

⁸ 그의 이웃들과 전에 이 사람이 구걸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아닌가?”

⁹ 어떤 사람들은 “맞아! 그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그 사람이 아니야. 생긴 모습이 닮았을 뿐이야.”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눈멀었던 그 남자가 “내가 그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¹⁰ 그들이 다그쳐 물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¹¹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발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¹² 그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 사람이 어디 있소?”

“모르겠습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서 고쳐 주신 사람에게 묻다

¹³ 그들은 눈멀었던 사람을 바리새파 사람들 앞으로 데리고 갔다. ¹⁴ 예수께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을 뜨게 한 날은 안식일이였다. ¹⁵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또다시 그에게 어떻게 그가 보게 되었는지를 물었다.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그분이 진흙을 내 눈에 발라 주셨습니다. 내가 씻었더니 지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¹⁶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몇이 말하였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물었다. “죄인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겠소?” 그들은 이렇게 서로 나뉘었다.

¹⁷ 그들은 눈멀었던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너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묻는 말이다.”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 †} **8:58 나는 있다** 여기서 ‘나는 있다’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사용된 하나님의 이름과 같으나, 또한 “나는 그(그리스도)이다.”라는 뜻도 될 수 있다.

^{¶ ¶} **9:7 실로암 못** 예루살렘 성이 있던 큰 산등성이의 남쪽 끝에 바위를 파서 만든 못. 히스기야왕이 판 주요 수로의 일부.

18 유대 사람들은 이 사람이 본래 눈이 멀었다가, 이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그의 부모를 불러오게 하였다. 19 그들이 그의 부모에게 물었다. “이 사람이 당신네 아들이오? 이 사람이, 당신들이 나면서부터 눈이 멀었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 그가 지금은 보게 되었소?”

20 그의 부모가 대답하였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가 우리의 아들이라는 것과, 나면서부터 눈이 멀었다는 것뿐입니다. 21 그러나 그가 어떻게 하여 앞을 보게 되었는지,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그도 다 큰 어른입니다. 그러니 자기 스스로 대답할 것입니다.” 22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유대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회당에서 쫓아내기로 이미 결정해 놓고 있었다. 23 그래서 그의 부모가 “그도 다 큰 어른이니, 직접 물어보십시오.” 라고 말한 것이다.

24 그들은 눈멀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왔다. 그들이 말하였다. “진실을 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25 그가 대답하였다. “나는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내가 전에는 눈이 멀었으나 지금은 본다는 것입니다.”

26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가 네게 어떻게 하였느냐? 그가 어떻게 네 눈을 고쳐 주었느냐?”

27 그가 대답하였다.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내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왜 다시 내 대답을 들으려 합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28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심한 욕을 퍼부으며 말하였다. “네가 이 사람의 제자로구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다! 29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사람에 관해서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른다.”

30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 주셨는데도, 당신들은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31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의 말에는 귀를 기울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32 세상이 생긴 이래로 이제껏 어느 누가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고쳐 주었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33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34 이 말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완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난 네가 어찌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그들은 그를 내쫓았다.

영적으로 눈먼 것

35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를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셨다. 그리고 그를 찾아 만나자 이렇게 물으셨다.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36 그가 “누가 사람의 아들이십니까, 선생님? 누가 그분이신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37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사람의 아들은 지금 너와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이다.”

38 그가 대답하였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였다.

39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눈먼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눈멀게 하려는 것이다.”

40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 몇이 이 말씀을 듣고 물었다. “그러면 우리도 눈이 멀었다는 말입니까?”

41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차라리 너희의 눈이 멀었더라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볼 수 있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 있다.”

목자와 그의 양들

10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게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다.² 문으로 버젓이 들어가는 사람은 양을 치는 목자이다.³ 문지기는 목자가 우리에게 들어가도록 문을 열어 주고, 양들은 목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밖으로 데리고 나온다.⁴ 그는 자기 양들을 모두 데리고 나온 다음, 양들을 앞서 간다. 그러면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에 그를 따른다.⁵ 그러나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서 도망칠 것이다. 그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모르기 때문이다.”⁶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으나, 그들은 이 이야기가 무엇을 뜻하는지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는 선한 목자시다

⁷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들을 위한 문이다.⁸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모두 도둑이고 강도다. 양들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⁹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거쳐서 들어가는 사람은 안전할 것이다. 그는 들어오고 나가며 넉넉한 꼴을 얻을 것이다.¹⁰ 도둑은 오로지 훔치고 죽이고 부수려고 온다. 그러나 나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고, 그 삶을 마음껏 누리게 하려고 왔다.

¹¹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친다.¹² 그러나 삷꾼은 다르다. 그는 목자도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므로, 늑대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 그러면 늑대가 양 떼를 덮쳐서 양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한다.¹³ 그가 도망치는 것은, 삷꾼이어서 양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기 때문이다.

¹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나를 안다.¹⁵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그리고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친다.¹⁶ 내게는 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 다른 양들도 있다. 나는 그들도 데리고 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러면 양 떼도 하나, 목자도 하나만 있을 것이다.¹⁷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내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침내 나는 내 목숨을 되찾을 것이다.¹⁸ 어느 누가 내 목숨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것이다. 나는 내 목숨을 버릴 권한도 있고, 그것을 되찾을 권한도 있다.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다.”

¹⁹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유대 사람들이 다시 나뉘었다.²⁰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말하였다. “그는 귀신^{§ §} 들려 아주 미쳐 버렸다. 무엇 하러 그의 말을 들겠는가?”

²¹ 그러나 다른 유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귀신 들린 사람은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귀신이 눈먼 사람의 눈을 고칠 수 있겠는가?”

예수를 반대하는 유대 사람들

²² 예루살렘에서 성전 봉헌절*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다. 때는 겨울이었다.²³ 예수께서는 성전 뜰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다.²⁴ 유대 사람들이 예수의 둘레에 모여들어 말하였다. “당신은 얼마나 더 우리의 마음을 조이게 할 작정이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그렇다고 분명히 말해 주시오.”

²⁵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이미 너희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기적이 내가 누구인지 말해 준다.²⁶ 그러나 너희는 믿지 않는다.

§ § **10:20** 귀신 마귀에게서 나온 악한 영.

* **10:22** 성전 봉헌절 히브리어로 ‘하누카’. 유대 사람들이 명절로 지키는 12월의 한 주간.

† **10:23** 솔로몬 행각 지붕과 기둥만 있는 건물로, 성전 뜰의 동쪽에 있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²⁷ 내 양은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나는 내 양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²⁸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러니 그들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한다. ²⁹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그 누구보다도 위대하시다. †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내 양들을 빼앗아 갈 수 없다. ³⁰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다.”

³¹ 유대 사람들은 이번에도 돌을 들어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³²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오는 큰 기적들을 너희에게 많이 보여 주었다. 그 기적들 가운데 어느 것 때문에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³³ 유대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는 것은, 당신이 보여 준 어떤 기적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기 때문이요. 당신은 한낱 사람에 지나지 않으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소!”

³⁴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의 율법서에도 ‘너희는 신들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 라고 쓰여 있다. ³⁵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들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결코 깰 수 없는 것이다. ³⁶ 아버지께서는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상에 보내셨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로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느냐? ³⁷ 만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나를 믿지 말아라. ³⁸ 그러나 내가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한다면, 나는 믿지 않더라도 내가 하는 일을 믿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³⁹ 유대 사람들이 다시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서 피하셨다.

⁴⁰ 그 뒤에 예수께서는 요단 강[§]을 건너서, 요한**이 처음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곳에 머무시는 동안에, ⁴¹ 많은 사람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요한은 표적을 단 한 번도 보여 주지 않았지만, 요한이 이 사람을 두고 한 말은 모두 사실이다.” ⁴²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나사로의 죽음

11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이 들었다. 그는 베다니 마을^{††} 사람이었는데, 베다니는 마리아와 그 여자의 자매 마르다가 사는 마을이었다. ² (이 마리아는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붓고, 주님의 발을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 드린 여자이다.) 병으로 누워 있는 나사로는 마리아의 오빠였다. ³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씀드렸다. “주님, 당신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⁴ 예수께서 이 말을 듣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날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⁵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 여자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⁶ 예수께서는 나사르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들을 더 머무셨다. ⁷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유대로 돌아가자.” 라고 말씀하셨다.

⁸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다시 가시겠다는 말씀입니까?”

‡ 10:29 내 아버지는…위대하시다 직역하면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은 그 무엇보다도 위대하다.’ 로써, 초기의 그리스어 사본들 가운데는 다르게 표현된 사본들이 많이 있다.

¶ 10:34 너희는…말하였다 시 82:5.

§ 10:40 요단 강 유대의 동쪽 지역에 있는 강으로, 북에서 남으로 흐른다.

**10:40 요한 세례자(침례자) 요한. 그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고 선포하였다(마 3장, 눅 3장).

†† 11:1 베다니 마을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마을.

9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낮에는 열두 시간 동안 해가 있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나니면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이 세상에 빛이 있어서 앞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0 그러나 밤에 걸어나니면, 그에게 빛이 없으므로 넘어질 것이다.”

11 예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지금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워야겠다.” 12 그러자 제자들은 “주님, 그가 잠들었다면 병도 낫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13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나사로가 정말로 자고 있다는 말로 알아들었다. 14 그래서 예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15 나는, 내가 그곳에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해 기쁘게 생각한다. 이 일로 너희가 나를 믿게 될 것이다. 자, 이제 그에게 가자.”

16 그때에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도 선생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 베다니에 가시다

17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러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 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18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오 리^{‡ ‡}가 조금 넘는 거리에 있었다. 19 나사로의 일로 많은 유대 사람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20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를 맞으러 나갔다. 그러나 마리아는 집에 있었다. 21 마르다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22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께서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3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네 오빠는 다시 살아 일어날 것이다.”

24 마르다가 대답하였다.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부활^{¶ ¶}할 때에, 제 오빠도 다시 살아 일어나리라라는 것을 압니다.”

25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26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마르다야, 네가 이것을 믿느냐?”

27 마르다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주께서는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시다

28 마르다는 이렇게 말한 뒤에, 돌아가 동생 마리아에게 가만히 말하였다. “선생님께서 여기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29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재빨리 일어나 예수께로 갔다. 30 예수께서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않으시고, 그때까지 마르다가 당신을 맞았던 곳에 계셨다. 31 마리아를 위로하며 같이 집에 있던 유대 사람들이 마리아가 재빨리 일어나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마리아가 울려고 나사로의 무덤^{§ §}으로 가는 줄 알고, 그 여자를 뒤따라갔다. 32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에 이르러 예수를 보고는,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이곳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33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비통한 마음이 북받쳐 올랐다. 34 예수께서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주님, 와서 보십시오.”

35 예수께서 우셨다.

‡ ‡ 11:18 오 리 그리스어로는 ‘15스타디아’. 3킬로미터쯤 되는 거리.

¶ ¶ 11:24 부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 § 11:31 무덤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

36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보시오!”

37 그러나 어떤 유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그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지 않았는가?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해 줄 수는 없었겠는가?”

38 예수께서는 다시 비통한 마음이 되셨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다

예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다. 그것은 동굴인데, 큰 돌이 무덤 어귀를 막고 있었다.

39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을 옮겨라.”

죽은 사람의 누이인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오빠가 거기 있는 지 나홀이 지났으니, 지금쯤은 냄새가 지독할 것입니다.”

40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41 그래서 그들이 돌을 옮기자,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2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43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셨다. 44 죽은 사람이 나왔다. 그의 손과 발은 좁고 긴 천으로 감겨 있었고, 얼굴도 천으로 감겨 있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를 풀어 주어 가게 하여라.”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일 계획을 세우다

(마 26:1-5; 막 14:1-2; 눅 22:1-2)

45 마리아를 찾아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46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말하였다.

47 그러자 높은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유대 의회를 불러모으고 말하였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소? 이 사람이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 주고 있소. 48 그가 계속 이런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성전과 백성을 완전히 없애 버리고 말 것이요.”

49 거기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가야바라고 하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 말하였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50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온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51 이것은 가야바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니었다. 그는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께서 온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52 그리고 그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려고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53 그들은 그날부터 예수를 죽일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였다. 54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로 더는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 광야†에서 가까운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가셨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머무르셨다.

55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다. 많은 사람이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유월절에 앞서 몸을 깨끗하게 하는 의식을 치르려는 것이었다. 56 그들은 예수를 찾다가, 성전 뜰에서 서로에게 물었다 “당신 생각은 어떻소? 그가 명절을 지키러 오지 않겠소?” 57 높은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누구든지 예수가 있는 곳을 알면 자기들에게 알리라는 명령을 내려 두고 있었다.

* 11:49 대제사장 유대 제사장들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제사장이며 지도자인 사람.

† 11:54 광야 너른 들판, 거친 들, 사막 등을 일컫는 말.

‡ 11:54 에브라임이라는 마을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24킬로미터쯤 떨어져 있는 마을.

베다니에서 친구들과 같이 계신 예수

(마 26:6-13; 막 14:3-9)

12 유월절이 되기 몇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다. 베다니는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² 거기에서 예수를 위한 저녁 잔치가 베풀어졌다.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저녁을 먹는 사람들 틈에 끼여 있었다.³ 마리아가 순수한 나드[§]로 만든 값비싼 향유 한 근^{**}을 가지고 왔다. 그 여자는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다. 그러자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⁴ 가리옷 사람 유다가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나중에 예수를 배반하게 되는 사람이다. 그가 말하였다.⁵ “그 향유는 한 사람의 일 년 치 품삯^{††}으로나 살 수 있는 값비싼 것이요. 어찌하여 그것을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소?”⁶ 그러나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도둑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돈주머니를 맡은 사람으로서, 자주 그 안에 든 돈을 몰래 꺼내었다.

⁷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마리아를 그대로 두어라. 그 여자는 내 장례 날에 쓰려고 간직해 오던 것을 썼다.⁸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 않다.”

나사로를 해치려는 음모

⁹ 많은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서 베다니에 계신다는 것을 듣고, 때를 지어 그곳으로 몰려갔다. 예수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고 싶어하였다.¹⁰ 그래서 높은 제사장들은 나사로도 함께 죽일 계획을 세웠다.¹¹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이 자기들을 버리고 예수께 가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

(마 21:1-11; 막 11:1-11; 눅 19:28-40)

¹² 이튿날,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와 있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다.¹³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예수를 맞으러 나가서 외쳤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¹⁴ 예수께서는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된 성경^{§§}의 말씀과 같았다.

¹⁵ “시온 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네 임금님이 오신다.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 12:1 베다니 예루살렘 남동쪽에 있는 마을.

§ 12:3 나드 나드라는 식물에서 만들어진 값비싼 기름은 주로 인도에서 수입되었다.

** 12:3 한 근 그리스어로는 ‘리트라’. 0.5리터쯤 되는 양.

†† 12:5 한 사람의 일 년 치 품삯 글자 그대로는 ‘300데나리온’. ‘데나리온’을 볼 것.

‡‡ 12:13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히브리어로는 ‘구원하소서’라는 뜻의 ‘호산나’. 여기서는 하나님 또는 그분이 보내신 메시아를 찬양하는 기쁨의 외침이었을 것이다.

¶¶ 12:13 복되시다…분이시여 시 118:25-26.

§§ 12:14 성경 구약성경.

* 12:15 시온 성 글자 그대로는 ‘딸 시온아’. 예루살렘을 가리킨다.

† 12:15 속 9:9.

16 이 일이 일어났을 때에는 제자들도 이 일의 뜻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뒤에야, 이 말씀이 그분을 두고 쓰인 것이며, 또 성경에 쓰인 그대로 사람들이 예수께 하였다는 것을 생각해 냈다. 17 예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을 때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신 일을 계속하여 널리 알렸다. 18 그리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를 찾으러 나갔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19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에게 말하였다. “보다시피 이제는 다 틀렸소. 온 세상 사람이 모두 그를 따르고 있소!”

삶과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다

20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온 사람들 가운데에는 그리스 사람들도 더러 있었다. 21 그들이 빌립을 찾아갔다. 빌립은 갈릴리의 벳새다[‡] 사람이었다. 그들은 빌립에게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뵈고 싶습니다.” 하고 부탁하였다. 22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였다. 그리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말씀드렸다.

23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얻을 시간이 되었다. 24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25 이처럼 자기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 목숨을 보존하고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이다. 26 누구든지 나를 섬기는 사람은 나를 따라야 한다.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는 사람을 내 아버지께서 높여 주실 것이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다

27 지금 내 마음이 몹시 괴롭다. ‘아버지, 이 고난의 때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할까? 아니다. 내가 이때에 온 것은 바로 이 고난을 겪으려는 것이다. 28 아버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그때에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이미 내 영광을 드러냈고, 다시 또 드러낼 것이다.”

29 그곳에 있던 무리가 그 소리를 들었다. 어떤 사람들은 천둥이 울렸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그분께 말하였다고 하였다.

30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목소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었다. 31 지금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이다.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 곧 사탄[¶]이 쫓겨날 것이다. 32 그러나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질 때에,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내게로 오게 할 것이다.” 33 이것은 예수께서 자신이 겪을 죽음이 어떤 것인지 귀땀을 주려고 하신 말씀이다.

34 무리가 말하였다. “우리는 율법서에서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사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찌하여 ‘사람의 아들이 들어 올려져야 한다.’ 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35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빛이 너희와 함께 있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 어둠이 너희를 덮치기 전, 곧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나라. 어둠 속을 걷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36 그러니 빛이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는 빛의 자녀가 될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그 자리를 떠나서, 무리에게서 자신을 숨기셨다.

‡ 12:21 벳새다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마을.

¶ 12:31 사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사람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는 악마의 우두머리.

§ 12:35 빛 1:5-9에서 처럼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의 성격을 나타내는 선과 진리를 상징한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다

37 예수께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보여 주셨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그분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38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말을 이루려는 것이었다.

“주님, 우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께서 보여 주신 능력을 누가 보았습니까?” † †

39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을, 이사야는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40 “주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다.

그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여,

내게로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 ‡

41 이것은 이사야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말한 것이며, 또 예수를 가리켜서 한 말이었다.

42 그러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유대 지도자들 가운데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자기들의 믿음을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았다. 회당에서 쫓겨날 것이 두려웠던 것이다. 43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보다 사람이 주는 영광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예수의 가르침이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

44 예수께서 크게 외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만을 믿는 것이 아니다. 그는 실제로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45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46 나는 이 세상에 빛으로 왔다. 그것은,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서 살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47 나는 내 말을 듣고도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 ¶ ¶ 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48 나를 거부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심판할 것이 따로 있다. 내가 한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49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말하였다. 아버지께서는 무엇을 말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말할 것인지를 내게 다 일러 주셨다. 50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대로 말한다.”

예수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다

13 유월절 바로 전이었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야 할 시간이 왔다는 것을 아셨다. 그분은 세상에 있는 당신의 사람들을 늘 사랑해 오셨지만, 이제는 그들에게 더할 수 없는 사랑을 쏟으셨다.

2 악마가 이미 가리옷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를 꺾어서, 예수를 배반하기로 마음먹게 한 뒤였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잡숫고 계셨다. 3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손에 맡기셨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과,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리라는 것도 알고 계셨다. 4 그래서 상에서 일어나 걸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 12:38 이사야 기원전 8세기 말에 유다에서 활동했던 예언자.

† † 12:38 사 53:1.

‡ ‡ 12:40 사 6:10.

¶ ¶ 12:47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두르셨다.⁵ 그리고 나서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 주시기 시작하였다.

⁶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자,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주님, 제 발을 씻겨 주시겠습니까?”

⁷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⁸ 베드로가 말하였다. “안 됩니다! 결코 선생님께 제 발을 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를 씻겨 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⁹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제 발을 씻기신 다음, 손과 머리도 씻겨 주십시오.”

¹⁰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목욕을 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⁵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¹¹ 예수께서는 자기를 배반할 사람을 알고 계셨다. 그래서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¹²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다음, 옷을 입고 다시 자리로 돌아가 앉으셨다. 그리고 물으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¹³ 너희가 나를 ‘선생님’이라고도 부르고 ‘주님’이라고도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정말로 선생이고 주이기 때문이다.¹⁴ 너희의 주이고 선생인 내가 종처럼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¹⁵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도 나처럼 해야 한다는 본을 보이려는 것이다.¹⁶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은 자기 주인보다 높지 않다. 보냄을 받은 사람은 그를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¹⁷ 이제 너희가 이것을 알았으니, 그대로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¹⁸ 너희 모두가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니다. 나는 내가 뽑은 사람들을 안다. 그러나 ‘내 빵을 먹는 사람이 나를 배반하였다.’^{*}라고 한 성경 말씀은 이루어져야 한다.¹⁹ 내가 지금 그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미리 말해 둔다.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라는 것을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²⁰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가 보내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곧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누가 예수를 배반할지 말씀하시다

(마 26:20-25; 막 14:17-21; 눅 22:21-23)

²¹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마음이 무척 괴로우셔서 제자들 앞에 드러내 놓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²² 제자들은 어리둥절하여 서로를 쳐다볼 뿐이었다. 예수께서 누구를 두고 말씀하시는지 몰랐기 때문이다.²³ 제자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예수의 곁에 비스듬히 앉아 있었다.²⁴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으로, 예수께서 누구를 두고 말씀하시는지 여쭙어 보라고 하였다.

²⁵ 그 제자는 예수께 더욱 바싹 기대며 여쭙었다. “주님,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²⁶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빵 조각을 적시어 가리옷 사람 시몬의 아들인 유다에게 주셨다.²⁷ 유다가 빵을 받자마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하려는 일을 서둘러 하라!”²⁸ 상에 앉아 있던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도 예수께서 유다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지 못하였다.²⁹ 유다는 돈을 맡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어떤 제자들은 예수께서

⁵ **13:10 발만 씻으면 된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길은 먼지가 많아서, 사람들의 발이 쉬이 더러워지곤 하였다.

^{*} **13:18 나를 배반하였다** 글자 그대로는 ‘내게 발뽀꿈치를 들었다.’(시 41:9).

[†] **13:19 내가 그이다** 또는 ‘나는 있다.’ ‘나는 있다’ 는 하나님의 이름(출 3:14). ‘내가 그이다’ 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이다’ 라는 뜻도 된다.

명절에 쓸 것들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알았다. 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얼 좀 주라는 말씀으로 생각하기도 하였다.

³⁰ 유다는 예수께서 주시는 빵을 받아 곧 밖으로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다

³¹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도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³²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면, [†] 하나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 주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³³ 내 자녀들아, 내가 너희와 조금 더 있겠다. 그 뒤에 너희가 나를 찾아다닐 것이다. 일찍이 내가 유대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제는 너희에게도 같은 말을 하여 둔다.

³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여라. ³⁵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다

(마 26:31-35; 막 14:27-31; 눅 22:31-34)

³⁶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여쭙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뒤에는 너희도 따라올 것이다.”

³⁷ 베드로가 여쭙었다. “주님, 어찌하여 지금은 제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저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겠습니다!”

³⁸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정말 나를 위해 네 목숨을 내놓겠느냐?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제자들을 위로하시다

14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²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미 너희에게 일러 주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해 놓으려고 간다. ³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그리고 너희를 데리고 가서, 너희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겠다. ⁴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이르는 길을 알고 있다.”

⁵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주께서 가시는 곳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⁶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어느 누구도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수 없다. ⁷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고 있다. 너희는 그분을 이미 보었다.”

⁸ 빌립이 말하였다.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⁹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빌립아, 내가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다. 그런데도 네가 나를 모르겠느냐?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도 보았다. 그런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 주십시오.’ 하느냐? ¹⁰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는 일이다. ¹¹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내 말을 믿어라.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는 일들을 보고 믿어라. ¹²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해 온 일을 할 것이다.

[†] 13:32 하나님께서...받으시면 어떤 고대 사본들에는 이 부분이 없다.

그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니,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¹³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¹⁴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성령에 관한 약속

¹⁵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¹⁶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대신하여 너희를 도와주실 성령 [§]을 보내실 것이다. 그러면 그분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다. ¹⁷ 그분은 진리를 알려 주는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분은 지금도 너희와 함께 살고 계시며, 앞으로도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¹⁸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¹⁹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더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내가 살아 있으므로 너희 또한 살 것이다. ²⁰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는 내 안에 있으며, 나는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²¹ 누구든지 내 계명을 받아서 그 계명에 순종하면, 바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을 내 아버지께서도 사랑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일 것이다.”

²² 그때에 가리옷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말하였다. “그러나, 주님, 어찌하여 우리에게는 주님을 나타내려 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나타내려 하지 않으십니까?”

²³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가르침에 순종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는 그를 사랑하실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와 나는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²⁴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듣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²⁵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쳤다. ²⁶ 이제 내 아버지께서 내 대신으로 성령님을 보내 주실 것이다.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하나하나 일깨워 주실 것이다.

²⁷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겨 준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²⁸ 너희는 ‘내가 가지만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라는 내 말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나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²⁹ 나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게 해서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³⁰ 내가 너희와 이야기할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오고 있다. 그에게는 나를 다스릴 권한이 없다. ³¹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한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대로 한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야 한다.

자, 이제 여기를 떠나자.”

나는 포도나무와 같다

15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분이다. ² 아버지께서는 내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들을 모두 잘라

[¶] 14:14 내 이름으로 또는 ‘나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나와의 관계 때문에’ ‘내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 14:16 나를 대신하여 너희를 도와주실 성령 또는 ‘보혜사’ ‘도와주시는 분’ ‘위로자’.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이시며, 세상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다.

** 15:2 가지 예수의 제자들(5절).

버리신다. 그러나 열매를 맺는 가지들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가지치기를 하신다. † †
 3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들을 들어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4 언제나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어떤 가지도 혼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가 내게서 떨어져 나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6 누구든지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는 버려진 가지와 같아서 말라 버리고 만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워 버린다.

7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여라.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8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어서, 내 제자라는 것을 보여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아버지께 영광이 될 것이다. 9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제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10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 ‡ ‡를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11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기쁨을 너희와 같이
 나누어서 너희 마음에도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12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이다. 13 사람이 보여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다. 14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친구다.
 15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
 주었기 때문이다. 16 너희가 나를 택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 ¶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17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이다.

제자들에게 앞일을 미리 알려 주시다

18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19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사람으로서 사랑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너희는 내가 세상 가운데서 가려 뽑아 낸 사람들이다. 그런 까닭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20 내가 ‘종이 그 주인보다 더 나을 수 없다.’ 고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여라. 그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그리고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21 그러나 그들은 너희가 내 제자라고 하여 너희에게 이런 모든
 일을 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모르기 때문이다. 22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자기 죄에 대하여 핑계를
 댈 수 없다. 23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도 미워한다. 24 나는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한 적이 없는 일들을 하였다. 내가 이 일들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모든 기적을 보고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한다. 25 그것은, 그들의 율법에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 § 라고 쓰여 있는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 † 15:2 가지치기를 하신다 ‘가지치기하다’ 라는 뜻의 그리스어는 ‘깨끗하게 하다’ 라는 뜻도 된다.

‡ ‡ 15:10 아버지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

¶ ¶ 15:16 내 이름으로 또는 ‘나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나와의 관계 때문에’ ‘내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 § 15:25 그들이...미워하였다 시 35:19 또는 69:4에서 따온 것으로 보인다.

26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를 도와주실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분은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진리의 영*이다. 그분은 오셔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27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에 대하여 증언해야 한다.

16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믿음을 잃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2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은 모두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오고 있다. 3 그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은 그들이 아버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기 때문이다. 4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미리 일러둔다. 때가 되어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그것에 대해 너희에게 미리 말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다.

성령이 하시는 일

내가 이 말을 처음부터 너희에게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5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 돌아간다. 그러나 너희는 아무도 나에게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묻지 않는다. 6 오히려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의 마음이 온통 슬픔에 젖어 있다. 7 그러나 사실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지 않으면, 너희를 도와주실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8 그분은 오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과, 나는 의롭다는 것과, 그들이 심판을 받으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주실 것이다. 9 그분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는 것을 보여 주실 것이다. 10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감으로써, 너희가 더는 나를 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주실 것이다. 11 또 세상을 다스리는 악마가 이미 심판을 받았으므로, 세상도 심판을 받으리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 주실 것이다.

12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할 말이 많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그 말을 감당할 수 없다. 13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셔서 너희를 이끌어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무엇이든지 자기가 듣는 것을 말씀하실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 주실 것이다. 14 그분은 내게서 받은 것을 너희에게 보여 주어서, 나를 영광스럽게 해 주실 것이다. 15 아버지께 속한 것은 모두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께서 내 것을 받아서, 그것을 너희에게 보여 주실 것이라고 말하였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16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조금 더 지나면 너희가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17 몇몇 제자들이 서로에게 말하였다. “선생님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조금 더 지나면 너희가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일까?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또 무슨 뜻일까?” 18 그들은 또 “도대체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알 수가 없다.” 라고 말하였다.

19 예수께서는 그들이 이것에 관해 당신께 묻고 싶어하는 것을 아셨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너희가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서로에게 묻고 있느냐? 20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슬퍼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슬픔에 잠기겠지만, 너희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21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가 되면 걱정이 많다. 진통을 겪어야 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기를 낳으면, 사람 하나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에, 그 진통은 잊어버린다. 22 너희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너희가 걱정한다.

* 15:26 진리의 영 또는 ‘성령’. 성령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도록 도우신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겠고, 너희는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너희의 기쁨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²³ 그날이 되면 너희는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실 것이다. ²⁴ 너희는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한 적이 없다. 구하여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의 기쁨이 가득 할 것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

²⁵ 내가 지금까지는 비유[†]를 써서 너희에게 말해 왔다. 그러나 더는 비유를 써서 말하지 않고 알아듣기 쉬운 말로 아버지께 관하여 말할 때가 오고 있다. ²⁶ 그날이 오면 너희는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²⁷ 아버지께서 몰소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했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²⁸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이 세상으로 들어왔다. 이제 나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 돌아갈 것이다.”

²⁹ 그때에 제자들이 말하였다. “지금은 선생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비유를 써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³⁰ 이제 우리는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누구도 선생님께 여쭙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누가 무엇을 여쭙어 보고 싶어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생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³¹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러면 이제는 믿느냐? ³² 너희가 뽕뽕이 흩어져서, 저마다 자기 집으로 갈 때가 오고 있다. 그때가 벌써 왔다. 너희는 나 혼자만 버려 두고 떠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³³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너희가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자신과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라

17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때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 주시어,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해 드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²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아버지께서 맡겨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삶을 주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³ 영원한 삶을 누리려는 것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⁴ 저는 아버지께서 제게 맡기신 일을 다 마침으로써, 세상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⁵ 세상이 생겨나기 전에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영광을 누렸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그 영광을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다시 누리게 해 주십시오.

⁶ 아버지께서는 세상 사람 가운데서 몇 사람을 뽑아서 제게 맡겨 주셨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려 주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지만, 아버지께서는 이들을 제게 맡겨 주셨습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잘 지켰습니다. ⁷ 이제 이들은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⁸ 저는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이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정말로 깨달았으며,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⁹ 저는 이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¹⁰ 제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며, 아버지의 것은 모두 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었습니다. ¹¹ 이제 저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갑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도 세상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들을 지켜 주십시오. 아버지의 능력으로, 곧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능력으로 이들을 지켜 주십시오.

[†] 16:25 비유 어떤 사물이나 생각을 설명하기 위해 쓰는 이야기 방식.

그리하여 아버지와 제가 하나이듯이,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¹² 제가 이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아버지의 능력으로 이들을 지켜 보았었습니다. 한 사람을 빼놓으면, 이들 가운데서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 한 사람은 멸망할 사람이었고, 그를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¹³ 저는 이제 아버지께 갑니다. 제가 아직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넘치는 제 기쁨을 같이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¹⁴ 저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이들을 미워합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 사람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¹⁵ 제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아버지께서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악한 자 사탄으로부터 지켜 주시라는 것입니다. ¹⁶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¹⁷ 진리로 이들을 구별하여, 이들이 당신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게 해 주십시오.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¹⁸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저도 이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냈습니다. ¹⁹ 이들을 위하여 저는 아버지를 섬기는 일에 제 자신을 바칩니다. 그것은 이들도 참으로 아버지께 자신들을 바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²⁰ 제 기도는 이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 기도는,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저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²¹ 제 기도는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이들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해 주십시오. ²² 저는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영광을 이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제가 하나이듯이,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²³ 제가 이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²⁴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이 사람들이 제가 있는 곳에 저와 같이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제게 주신 영광을, 이들도 보게 해 주십시오. ²⁵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모르지만 저는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²⁶ 저는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려 주었으며, 앞으로도 알려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이들 안에 있게 하고, 저 또한 이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붙잡히시다

(마 26:47-56; 막 14:43-50; 눅 22:47-53)

18 예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올리브 과수원이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과수원 안으로 들어가셨다.

²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서 자주 모이셨다. 그래서 예수를 배반한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³ 유다는 로마 군인 한 떼와 높은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무장을 갖추고 횃불과 등불을 들고 있었다.

⁴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모두 아시고, 앞으로 나오시며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⁵ “나사렛 사람 예수요.” 그들이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배반자 유다도 그들과 함께 그곳에서 있었다.)

⁶ 예수께서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뒤로 물러서다가 땅에 넘어졌다.

[‡] 17:12 성경 구약 성경.

[¶] 18:1 기드론 골짜기 예루살렘 성과 감람산 사이의 골짜기.

⁷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물으셨다. “너희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⁸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가 찾는 사람이 나라면,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은 가게 하여라.” ⁹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¹⁰ 시몬 베드로는 칼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그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¹¹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셨다. “네 칼을 치워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안나스 앞으로 끌려가시다

(마 26:57-58; 막 14:53-54; 눅 22:54)

¹² 로마 군인들과, 그들의 대장과, 유대 사람의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를 붙잡아 묶어서 ¹³ 안나스에게 끌고 갔다.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다. ¹⁴ 가야바는 유대 사람들에게, 백성을 위하여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고 말한 사람이다.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말하다

(마 26:69-70; 막 14:66-68; 눅 22:55-57)

¹⁵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였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까지 들어갔다. ¹⁶ 그러나 베드로는 대문 밖에서 기다려야 했다.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여종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¹⁷ 문지기 여종이 베드로에게 물었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가 아닌가요?”

베드로가 “아니오.” 하고 대답하였다.

¹⁸ 날이 추워서 종들과 경비병들은 몸을 녹이려고 불을 피우고, 불가에 둘러 서 있었다. 베드로도 이 사람들과 함께 서서 불을 찌고 있었다.

대제사장이 예수께 묻다

(마 26:59-66; 마 14:55-64; 눅 22:66-71)

¹⁹ 대제사장이 예수께, 그분의 제자와 가르침에 관해 물었다. ²⁰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 놓고 말하였다.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 사람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 나는 어떤 것도 비밀스럽게 말하지 않았다. ²¹ 그런데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은 틀림없이 내가 한 말을 알고 있을 것이다.”

²²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가까이 있던 경비병 가운데 하나가 예수의 뺨을 쳤다. 그는 “대제사장님께 그게 무슨 대답이나?” 라고 말하였다.

²³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틀린 말을 하였으면, 무엇이 틀렸는지 증거를 대어라. 그러나 내 말이 옳다면, 어찌하여 네가 나를 치느냐?”

²⁴ 그 뒤 안나스는 예수를 묶은 채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다.

§ 18:11 잔 고난의 상징.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닥칠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을 쓴 잔을 마시는 것에 비유하셨다.

베드로가 다시 거짓말하다

(마 26:71-75; 막 14:69-72; 눅 22:58-62)

25 시몬 베드로가 불을 피고 서 있는데,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그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오?”

베드로는 “아니오.” 라고 그들의 말을 부인하였다.

26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거기에 있었다. 그는 베드로가 귀를 자른 사람의 친척이었다. 그가 말하였다. “당신이 올리브 과수원에서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본 것 같소.”

27 베드로가 다시 그의 말을 부인하자, 바로 그 순간에 닭이 울었다.

빌라도 앞으로 끌려가시다

(마 27:1-2, 11-31; 막 15:1-20; 눅 23:1-25)

28 그 뒤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가야바의 집에서 로마 총독의 관저**로 끌고 갔다. 이미 이른 아침이었다. 유대 사람들은 부정을 타지 않고 유월절음식을 먹으려고††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29 그래서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나와서 물었다. “당신들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는 거요?”

30 유대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그가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님께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31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그를 직접 데리고 가서, 당신네 법에 따라 재판하시오.”

유대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그러나 로마법에 따르면 우리에게서 사람을 사형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32 이것은, 예수께서 자신이 겪을 죽음이 어떤 것인지 귀땀해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려고 일어났다.

33 빌라도는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오게 하였다. 그리고 물었다. “당신이 유대 사람들의 왕이오?”

34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 물음은 당신 생각이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두고 당신에게 일러 준 말이오?”

35 빌라도가 말하였다. “나는 유대 사람이 아니오. 당신을 내게 넘겨준 것은 당신의 동족이고, 당신네 높은 제사장들이오. 당신이 지은 죄가 무엇이오?”

36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왕권은 이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오. 내 왕권이 이 세상의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았을 것이오. 그러나 내 왕권은 결코 이 세상의 것이 아니오.”

37 빌라도가 물었다. “그렇다면 당신은 왕이로군?”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왕이라는 당신의 말은 옳은 말이오. 사실 나는 왕이 되려고 태어났으며, 세상에 왔소. 그리고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함으로써 다스리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모두 내 말에 귀를 기울이오.”

38 빌라도가 물었다. “진리가 무엇이오?” 빌라도는 이렇게 말하고 유대 사람들에게로 다시 나가서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을 고소할 근거를 찾을 수 없소. 39 그러나 내가 유월절에 죄수 하나를 풀어 주는 관례가 있소. 당신들은 내가 ‘유대 사람들의 왕’을 풀어 주기를 원하시오?”

40 그들이 소리쳐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아닙니다! 바라바를 풀어 주십시오!” 그런데 바라바는 도적의 무리에 속한 자였다.

** 18:28 총독의 관저 그리스어로는 ‘프라이토리온’.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 총독의 관저로서, 유대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모든 로마의 기관이 이곳에 있었다.

†† 18:28 부정을 타지 않고… 먹으려고 유대 사람이 외국인의 장소에 들어가면, 부정을 타서 이미 행한 몸과 마음을 씻는 특별한 의식이 소용없게 될 것이었다. 부정을 탄 사람은 유월절음식을 먹지 못하게 되어있었다. (요 11:55).

19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으로 때렸다. ² 군인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웠다. 그리고 예수께 자색 옷을 입히고, ³ 거뜰거뜰 그분께 다가가 “유대 사람들의 왕, 만세!”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분의 얼굴을 때렸다.

⁴ 다시 한 번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서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그를 당신들 앞으로 데리고 나오겠소. 그를 고소할 근거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리려는 것이오.” ⁵ 예수께서 가시나무 왕관을 쓰고 자색 겹옷을 입고 나오시자,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자, 여기 그 사람이 있소!”

⁶ 높은 제사장들과 그들의 경비병들은 그분을 보자마자 소리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나 빌라도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들이 그를 데려다가 직접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을 고소할 아무런 근거도 찾지 못하였소.”

⁷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도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르면 그는 죽어 마땅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⁸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더욱 두려워졌다. ⁹ 그는 관저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그러나 예수께서는 잠자코 계셨다. ¹⁰ 빌라도가 말하였다. “내게 말하기를 거부할 작정이오? 내게는 당신을 풀어 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¹¹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더라면, ^{‡‡} 당신에게는 나를 해칠 아무런 권한도 없었을 것이오. 그러니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가 더 크오.”

¹² 그때부터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 주려고 애썼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계속 소리를 질렀다. “누구든지 자기를 가리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저 ^{¶¶}에게 대항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을 풀어 주면, 총독께서는 시저에게 불충하는 것입니다.” ^{§§}

¹³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데리고 나와서, 리토스트로토스*라는 곳에 있는 재판관 자리에 앉았다. (리토스트로토스는 아람 말 [†]로 가바다인데, ‘돌을 깔아 놓은 곳’이라는 뜻이다.) ¹⁴ 이 날은 유월절을 준비하는 날이었고,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자, 여기 여러분의 왕이 있소!”

¹⁵ 그러나 그들은 “그 자를 없애 버리시오! 없애 버리시오!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소리쳤다.

빌라도가 물었다. “여러분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오?”

높은 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의 왕은 시저 한 분뿐이십니다!”

¹⁶ 마침내 빌라도는 유대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마 27:32-44; 막 15:21-32; 눅 23:26-43)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넘겨받았다. ¹⁷ 예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이라는 곳으로 가셨다. (아람 말 [‡]로는 이곳을 골고다라고 한다.) ¹⁸ 이곳에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예수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 하나씩

^{‡‡} **19:11**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더라면 글자 그대로는 ‘위에서 주시지 않았더라면’.

^{¶¶} **19:12** 시저 로마 황제를 이르는 칭호.

^{§§} **19:12** 시저에게 불충하는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는 “시저의 친구가 아닙니다.”

* **19:13** 리토스트로토스 돌을 박아 포장한 광장이나 길.

[†] **19:13** 아람 말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살던 대부분의 유대 사람들이 쓰던 히브리어와 비슷한 언어.

[‡] **19:17** 아람 말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살던 대부분의 유대 사람들이 쓰던 히브리어와 비슷한 언어.

세워 놓았다. ¹⁹ 빌라도가 팻말을 준비하여 십자가 위에 붙였다. 거기에는 ‘나사렛 사람 예수, 유대 사람의 왕’ 이라고 쓰여 있었다. ²⁰ 많은 유대 사람이 그 팻말을 읽었다. 그곳이 예루살렘 성에 가까웠고, 팻말이 아람 말과 라틴 말[¶] 과 그리스 말로 쓰여 있었기 때문이다. ²¹ 유대 사람의 높은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의 왕’ 이라고 쓰지 말고, ‘이 자는 스스로 유대 사람의 왕이라고 하였다.’ 라고 쓰십시오.”

²² 빌라도가 대답하였다. “한번 썼으면 그만이다.”

²³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예수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서 한 사람이 한 몫씩 차지하였다. 그러나 속옷은 솔기 없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짠 것이었다. ²⁴ 그래서 그들이 서로에게 말하였다. “이 옷은 찢지 말고, 제비를 뽑아서 가질 사람을 정하자.” 이것은

“그들이 내 겹옷을 나누어 가지고

내 옷을 놓고 제비를 뽑았다.”[§]

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군인들이 바로 그렇게 하였다.

²⁵ 예수의 십자가 가까이에 그분의 어머니가 서 계셨다. 예수의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여자 마리아도 거기에 서 있었다. ²⁶ 예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어머님, 이 사람이 어머님의 아들입니다.” ²⁷ 그리고 제자에게는 “여기 이분이 네 어머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때부터 그 제자는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예수께서 숨을 거두시다

(마 27:45-56; 막 15:33-41; 눅 23:44-49)

²⁸ 그 뒤에 예수께서는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다. ²⁹ 마침 그곳에 신 포도주가 가득 든 항아리가 있었다. 사람들은 겻솜^{‡‡} 에 그 신 포도주를 듬뿍 적셔 히솜 풀^{¶¶} 대에 꿰어 예수의 입에 갖다대었다. ³⁰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드시고 난 다음에, “다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고개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셨다.

³¹ 그날이 금요일이었다. 유대 사람들은 그 다음 날인 안식일에 주검을 십자가에 그대로 두고 싶지 않았다. 그 안식일은 특별히 엄숙하게 지켜야 할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의 다리를 꺾어 빨리 죽게 한 다음, 그들의 주검을 치우게 해 달라고 청하였다. ³² 그래서 군인들이 와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첫째 사람의 다리와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다. ³³ 그러나 그들이 예수 앞에 와서는 이미 숨을 거두신 것을 보고, 그분의 다리는 꺾지 않았다. ³⁴ 그 대신 군인 하나가 예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다. 그러자 피와 물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³⁵ (이 일을 본 사람이 증언한다. 그것은 여러분도 믿게 하려는 것이다.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참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³⁶ 이 일들이 일어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³⁷ 또 성경의 다른 곳에는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볼 것이다.”* 라는 말씀도 있다.

¶ 19:20 라틴 말 고대 로마에서 쓰던 말.

§ 19:24 시 22:18.

** 19:28 성경 구약성경.

†† 19:28 목마르다 시 22:15; 69:21.

‡‡ 19:29 겻솜 ‘해면’ 또는 ‘스폰지’.

¶¶ 19:29 히솜 풀 또는 ‘우슬초’. 정결하게 하는 의식에서, 피나 물을 뿌릴 때 쓰는 잔가지와 이파리가 많이 붙은 식물.

§§ 19:36 그의...것이다 출 12:46; 민 9:12; 시 34:20.

* 19:37 속 12:10.

예수께서 묻히시다

(마 27:57-61; 막 15:42-47; 눅 23:50-56)

³⁸ 그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주검을 거두게 해 달라고 청하였다. (요셉은 예수의 제자였다. 그러나 그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사실을 숨겨 왔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요셉이 가서 예수의 주검을 십자가에서 내렸다. ³⁹ 니고데모가 요셉과 함께 갔는데, 그는 어느 날 밤에 예수를 찾아가면 적이 있는 사람이었다. 니고데모는 몰약과 알로에를 섞은 것을 백 근쯤[†] 가져왔다. ⁴⁰ 이 두 사람은 예수의 주검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풍속대로 향료를 바르고 고운 베로 감았다. ⁴¹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과수원이 하나 있었다. 이 과수원에는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새 무덤이 하나 있었다. ⁴² 그날은 유대 사람의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었고, 이 무덤이 가까이 있었으므로 두 사람은 예수의 주검을 그곳에 모셨다.

제자들 예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다

(마 28:1-10; 막 16:1-8; 눅 24:1-12)

20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새벽,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예수의 주검을 모신 무덤으로 갔다. 마리아는 무덤 어귀를 막고 있던 큰 바위가 옮겨져 있는 것을 보았다. ²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셨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어요. 그분을 어디에 두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³ 이 말을 듣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갔다. ⁴ 두 사람이 같이 달려갔지만,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닿았다. ⁵ 그는 몸을 굽혀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고운 베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⁶ 뒤따라 온 시몬 베드로가 무덤 안으로 들어갔다. 베드로도 고운 베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⁷ 그는 예수의 머리를 감았던 천도 보았다. 그 천은 고운 베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개켜 있었다. ⁸ 그제야 먼저 그곳에 닿은 다른 제자도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⁹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야 한다고 한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다

(막 16:9-11)

¹⁰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¹¹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울며 서 있었다. 마리아가 울면서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¹²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주검을 모셨던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머리가 놓였던 곳에 앉아 있었고, 다른 천사는 예수의 발이 놓였던 자리에 앉아 있었다.

¹³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물었다. “여인아,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제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그들이 그분을 어디에 모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¹⁴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고 뒤돌아보니, 예수께서 거기에 서 계셨다. 그러나 그분이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¹⁵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물으셨다. “여인아, 어찌하여 우느냐? 네가 찾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 19:39 백 근쯤 그리스어로는 ‘100리트라이’. 34킬로그램쯤 되는 무게.

[‡] 20:1 안식일 다음 날 글자 그대로는 ‘주간의 첫 날’, 곧 일요일.

[¶] 20:9 성경 구약성경.

마리아는 이 사람이 과수원을 돌보는 사람인 줄로 알고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이 그분을 다른 곳으로 옮기셨으면, 그분을 어디로 옮겼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가서 모셔가겠습니다.”

¹⁶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리아야.” 하고 말씀하셨다.

그 여자는 그분 쪽으로 몸을 돌려, 아람 말[§]로 “라보니.” 하고 말하였다. (라보니는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¹⁷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붙들지 말아라. 대신에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하여라. ‘나는 내 아버지이시며 너희의 아버지이시고, 내 하나님이시며 너희의 하나님이신 분께 돌아간다.’”

¹⁸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님을 뵈었어요!”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께서 자기에게 이리이러한 말씀을 하셨노라고 말하였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

(마 28:16-20; 막 16:14-18; 눅 24:36-49)

¹⁹ 그날은 안식일 다음 날**이었다. 그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두려워서 문을 모두 닫아걸고 있었다. 그때에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²⁰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하였다.

²¹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낸다.” ²²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내뿜으시며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²³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의 죄가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도마에게 나타나시다

²⁴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쌍둥이’†† 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에 그 자리에 없었다. ²⁵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자 도마가 말하였다. “나는 그분의 손에서 못자국을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고, 그분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 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소.”

²⁶ 한 주일 뒤에 제자들이 다시 같은 집에 모여 있었는데, 그 자리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들이 모두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²⁷ 그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네 손가락을 여기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이제는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²⁸ 도마가 그분께 말하였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²⁹ 그러자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요한이 이 책을 쓴 까닭

³⁰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 주셨다. ³¹ 여기에 이것들을 기록하는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 20:16 아람 말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살던 대부분의 유대 사람들이 쓰던 히브리어와 비슷한 언어.

** 20:19 안식일 다음 날 글자 그대로는 ‘주간의 첫 날’, 곧 일요일.

†† 20:24 쌍둥이 그리스어로는 ‘디두모’.

아들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믿어서, 그분을 통하여 참된 삶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 일곱 제자에게 나타나시다

21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 옆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모습을 나타내 보이셨다. 그 일은 이렇게 일어났다. ²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인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 밖에 두 제자가 함께 모여 있었다. ³ 그때 시몬 베드로가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려네.” 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같이 가겠네.” 라고 말하고, 나가서 곧 배에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⁴ 이튿날 날이 밝아 올 즈음에 예수께서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였다.

⁵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애들아, 물고기 좀 잡았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아니오.” 하고 대답하였다.

⁶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배의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 보아라. 그러면 물고기가 좀 있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대로 하였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을 배로 끌어올릴 수 없었다.

⁷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저분은 주님이시다!” 베드로는 “저분은 주님이시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일을 하려고 벗었던 겹옷을 얼른 걸치고 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⁸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로 물고기가 가득 찬 그물을 끌고 뒤를 따랐다. 그들은 물에서 백 자^{§§}쯤 되는 가까운 곳에 들어가 있었다. ⁹ 제자들이 배에서 내려 물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피워져 있고, 불 위에는 물고기가 구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빵도 조금 있었다.

¹⁰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물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¹¹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물으로 끌어올렸다. 그물에는 큰 물고기가 가득 들어 있었다. 모두 백헌세 마리였다. 그렇게 많은 물고기가 들어 있는데도 그물은 터지지 않았다. ¹²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그분께 감히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¹³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하셨다.

¹⁴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다

¹⁵ 제자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주께서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양들을 먹여라.”

¹⁶ 예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주께서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¹⁷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 **21:1 디베라 호수**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 6:1을 보라.

¶¶ **21:2 가나** 갈릴리 지방 서쪽에 있는 마을.

§§ **21:8 백 자** 그리스어로는 ‘200큐빗’. 약 90미터.

* **21:16 양** 예수께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키실 때 자주 쓰신 말이다(요 10장).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세 번째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니 마음이 아팠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주께서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먹여라. ¹⁸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어디든지 네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네가 팔을 벌리면, 다른 사람이 너를 묶어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¹⁹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먼저 알려 주시려는 것이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²⁰ 베드로는 돌아서서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가 뒤따라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 제자는 마지막 저녁 식사 때에 예수께 비스듬히 등을 기대고 앉아, “주님, 누가 주님을 배반하게 됩니까?” 하고 여쭙었던 사람이다.) ²¹ 베드로가 뒤에서 따라오는 이 제자를 보고 예수께 여쭙었다.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²²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 있기를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²³ 그리하여 믿는 이들 사이에, 이 제자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 그분은 다만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 있기를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을 따름이다.

²⁴ 이 모든 일을 증언하고 또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안다.

²⁵ 예수께서는 이 밖에도 많은 일을 하셨다. 이것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온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 둘 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